

2018년 12월 18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지속 여파로 하락 트럼프, 피터 나바로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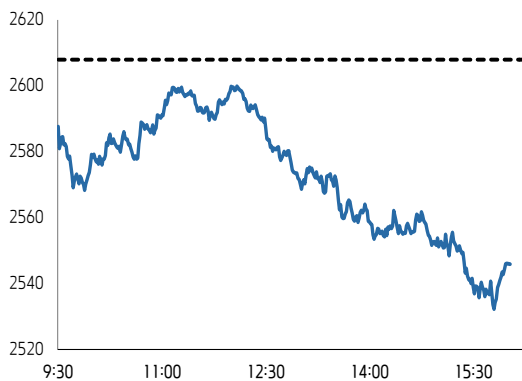
###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증시는 영국 의류 업체인 ASOS(-37.55%) 급락 여파로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이 부진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보험권까지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음. 그러나 트럼프와 피터 나바로가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하자 FOMC 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하락폭 확대. 특히 기술주가 하락 전환한 점이 부담(다우 -2.11%, 나스닥 -2.27%, S&P500 -2.08%, 러셀 2000 -2.32)

미 증시는 ①경기 둔화 ②FOMC 이슈로 하락. 먼저 경기 둔화가 다시 부각된 점은 소비 위축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영국의 온라인 의류 업체인 ASOS 가 “주요 시장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심리지수 악화로 최근 몇 년간 의류 판매 중 가장 악한 상태” 라고 경고. 특히 “브렉시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주장. 영국의 통계청은 상반기에 영국 소매업 일자리가 약 8 만개 줄었다고 발표. 이러한 영국발 악재로 아마존(-4.46%)과 타겟(-4.24%) 등 소매 유통업체가 부진. 시장에서는 소비 감소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를 높였다고 분석. 다만, 미국의 서비스업지수(60.3→60.7)을 비롯 중국의 서비스업지수(50.8→53.8)가 개선되고 있어 소비 둔화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정책 국장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점도 불확실성 확대 요인. 트럼프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믿을 수 없다” 라고 주장. 피터 나바로 또한 “연준은 데이터를 봐야 하며 사실상 제로 인플레이션에 그치고 있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 라고 언급. 더 나아가 “미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은 연준이다” 라고 주장.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주식시장은 낙폭이 확대되고, 국제유가는 50 달러를 하회했으며, 국제가격과 엔화와 금 가격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71.09	+0.08	홍콩항셱		26,087.98	-0.03
KOSDAQ		661.90	-0.67	영국		6,773.24	-1.05
DOW		23,592.98	-2.11	독일		10,772.20	-0.86
NASDAQ		6,753.73	-2.27	프랑스		4,799.87	-1.11
S&P 500		2,545.94	-2.08	스페인		8,812.50	-0.83
상하이종합		2,597.97	+0.16	그리스		632.04	-2.05
일본		21,506.88	+0.62	이탈리아		18,693.45	-1.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매 유통업체 하락

베스트바이(-5.67%)는 BOA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BOA는 아이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베스트바이의 미국 매출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판매 부진은 베스트바이 매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아마존(-4.46%)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매출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며 하락 했다. 한편, 영국의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인 Asos(-37.55%)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급락한 여파도 온라인 소매 유통 업체들의 하락을 부추겼다. 타겟(-4.24%), 갭(-4.32%), L브랜드(-4.28%) 등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J&J(-2.90%)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 스캔들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골드만삭스(-2.73%)는 1MDB 스캔들로 인해 말레이시아에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두명의 전직 직원에 대한 소식 여파로 하락 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2.30%)는 프랑스 의약품 사업을 일본의 다이쇼 제약에 매각하기로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보잉(-0.82%)은 브라질 정부와 7월에 처음 발표 된 합작 투자 조건을 확정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16%	대형 가치주 ETF	-1.83%
에너지섹터 ETF	-0.96%	중형 가치주 ETF	-2.29%
소매업체 ETF	-2.21%	소형 가치주 ETF	-1.94%
금융섹터 ETF	-0.95%	배당주 ETF	-1.72%
기술섹터 ETF	-2.12%	변동성 ETF	+5.06%
소셜 미디어업체 ETF	-3.55%	대형 성장주 ETF	-2.27%
인터넷업체 ETF	-3.26%	중형 성장주 ETF	-2.55%
리츠업체 ETF	-3.74%	소형 성장주 ETF	-2.54%
주택건설업체 ETF	-1.33%	신흥국 고배당 ETF	-0.52%
바이오섹터 ETF	-1.6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4%
헬스케어 ETF	-1.99%	하이일드 ETF	-0.67%
곡물 ETF	-0.69%	물가연동채 ETF	+0.16%
반도체 ETF	-0.95%	Long/short ETF	-0.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7.46	-1.86%	-3.51%	-8.62%
소재	313.88	-1.87%	-3.23%	-8.20%
산업재	551.45	-1.72%	-3.44%	-8.69%
경기소비재	784.91	-2.82%	-4.12%	-6.85%
필수소비재	542.90	-2.28%	-2.83%	-5.22%
헬스케어	1,005.04	-2.11%	-4.23%	-4.61%
금융	396.81	-0.98%	-3.13%	-10.46%
IT	1,104.35	-2.21%	-3.61%	-7.59%
커뮤니케이션	141.68	-1.90%	-2.14%	-4.63%
유틸리티	276.93	-3.27%	-2.94%	+1.25%
부동산	198.00	-3.72%	-5.06%	-2.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시진핑 주석 연설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56% MSCI 신흥 지수도 0.93%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매도(-898 계약) 여파로 2.20pt 하락한 261.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9.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요 증시는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이 소비 둔화 우려로 하락하자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부진 했다. 이는 향후 한국 수출 둔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는 부담이다. 또한 국제유가가 수요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50 달러를 하회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한편, 오늘은 중국에서 '개혁개방 40 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언론들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이 가려진 가운데 '중요한 연설' 이라고 보도 했으며 해외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추가적인 경제 개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실무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등 일부 핵심 의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진핑 주석 연설 내용에 따라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제조업지표 둔화

12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22.3) 보다 크게 둔화된 10.9 로 발표돼 2007 년 5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0.4→14.5), 재고지수(10.9→7.1) 등이 부진한 가운데 고용지수(14.1→26.1)은 개선 되었다.

12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60) 보다 둔화된 56 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주택지표 둔화 여파로 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50 을 상회하고 있어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50 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장 초반 UAE 에너지 장관이 “12 월 OPEC 정례회담에서 합의된 공급 감소약속을 모든 국가들이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경기 위축 우려로 향후 원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전환했다. 또한 11 월 중국의 정유 처리량이 10 월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 여기에 쿠싱지역 원유 재고가 100 만 배럴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 또한 영향을 주며 50 달러 이하로 하락 했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강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메이 영국 총리가 하원에 출석해 1 월 7 일부터 토론을 한 뒤 그 다음주에 표결을 열 것이라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메이 총리가 불신임 표결에서 승리한 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정부와 EU가 예산안을 두고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경제지표 둔화 및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강한 비난을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낙폭이 제한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1%, 철근도 0.2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9.88	-2.58	-2.20	Dollar Index	97.154	-0.30	-0.07
브렌트유	59.61	-1.11	-0.60	EUR/USD	1.1346	+0.35	-0.09
금	1,251.80	+0.84	+0.19	USD/JPY	112.83	-0.49	-0.44
은	14.759	+0.83	+1.05	GBP/USD	1.2615	+0.25	+0.43
알루미늄	1,942.00	+0.83	+0.21	USD/CHF	0.9931	-0.49	+0.27
전기동	6,123.00	-0.14	+0.56	AUD/USD	0.7175	+0.04	-0.21
아연	2,539.00	-0.16	-1.40	USD/CAD	1.3414	+0.22	+0.12
옥수수	384.00	-0.19	0.00	USD/BRL	3.9023	-0.26	-0.53
밀	535.25	+0.99	+1.90	USD/CNH	6.8982	-0.06	-0.24
대두	918.00	+0.47	-0.51	USD/KRW	1131.30	+0.04	+0.43
커피	100.10	-2.10	-4.80	USD/KRW NDF1M	1129.00	-0.13	+0.2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50	-3.97	-0.77	스페인	1.397	-1.30	-4.30
한국	2.002	+0.20	+2.50	포르투갈	1.645	-1.60	-13.60
일본	0.041	+0.60	-0.20	그리스	4.324	+10.00	+9.10
독일	0.256	+0.40	+1.00	이탈리아	2.957	+2.10	-14.70